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4.(월) 14시

K-푸드 열풍 타고! 동포 청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개시

- 한국어교육과 직업훈련 결합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내 체류 동포 지원 강화)

-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은 8월 24일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포청년의 직업 역량 강화와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동포청이 한국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동포청년의 국가자격증 취득과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 특히 전 세계적인 K-푸드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멕시코, 쿠바, 브라질,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 출신의 동포청년들이 다수 참여한다. 이 밖에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총 12개국 동포청년들이 참여해 한국에서 전문 기술을 익히고 취업에 도전한다.
- 교육과정은 총 10개월간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식조리, 제과·제빵 분야의 실습 중심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수료 후 직장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직업 훈련은 한식조리와 제과·제빵 분야의 전문 기술 습득과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하며, 교육 수료 이후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 동포청은 이를 통해 ‘한국어능력 향상→직업훈련→국가자격증 취득→취업→국내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포청년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경협 청장은 “동포 청년들이 모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동포 청년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국내 산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개소식 사진.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강모세 (032-585-3280)
		담당자	사무관	김주동 (032-585-3281)
			주무관	홍혜원 (032-585-3282)

